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luencing Factors on Empowerment Improvement in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강영한*, 박종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Yeong-Han Kang(glamens@paran.com)*, Jong-Sam Park(chongs@dhc.ac.kr)**

요약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습교육요인과 실습기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 실습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실습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임파워먼트 척도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대인통제, 전공진로통제, 전공에 대한 사기, 지식 및 기술적 성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4$ 로 높았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beta=-.029$), 학과 선택 만족여부($\beta=.194$), 슈퍼비전 만족도($\beta=.196$), 학교실습수업만족도($\beta=.204$) 이었다. 즉 보건계열학과의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은 본인의 학과에 만족하며 실습수업에 충실히 임하여야 하고, 슈퍼바이저는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임상지침서를 충분히 활용하며, 학생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전에 실습과목이 수강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실습 전에 충분한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심어 : | 임상실습 | 임파워먼트 | 슈퍼바이저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oper alternatives of college practice and to do a effective practice in institute of clinical training, through analyze empowerment factors of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scale of empowerment was consisted of self-esteem, self-control, personal control, major·career control, morale for major, growth of knowledge and technique. Reliability of scale(Cronbach α value) was .944. Factors of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empowerment was related to gender($\beta=-.029$), satisfaction to major department($\beta=.194$), satisfaction to supervision($\beta=.196$), and satisfaction practice class($\beta=.204$). As results, to increase empowerment, students have to be content with major and class, supervisor have to make full use of the clinical manual for student and supportive relation with student to be a systematic practice. In college, students have to take an clinical class and sufficient orientations before practice, and assign clinical institution and practical duration that they want.

■ keyword : | Clinical Practice | Empowerment | Supervisor |

I. 서론

보건계열의 학과는 졸업 후 곧바로 임상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실무 중심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전문 교육의 특성인 실제적 상황 속에서 학생의 실천적 지식, 기술 및 가치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1]. 또한 임상실습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적응도와 업무관련기 및 장비사용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병원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와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임상실습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역량 및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은 실습환경, 실습지도자, 실습학생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습담당교수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학생과 실습이 일어나는 기관간의 주요 연결자로서 임상실무를 교육해야할 뿐 아니라, 실습기관의 실습담당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류하여야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학교 실습교육을 실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전공업무에 필요한 자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향후 자기직업에 대해 미리 실천함으로써 구체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4-6].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임상 실습경험이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임파워먼트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정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 즉,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7],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을 형성해 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시키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8]. 일반적으로 임파워먼트가 높은 개인은 그들의 삶의 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안다. 나아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개인이 임파워먼트 되었다고 느낄 때는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 혹은 책임질 수 있다는 지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9]. 결국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건계열의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이 의료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자기 인식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습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에 의해 실습생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학생실습에 대한 연구는 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었고[2][5][6][10-13],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인에게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14-17], 실습이 필수적인 보건계열 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임파워먼트 연구는 거의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습교육요인과 실습기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 실습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실습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12년 2월 현재 대구지역 1개 대학 3년제 보건계열학과(임상병리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과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전원은 최근 1년 내에 실습수업과 임상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 후 회수 하였다. 이 중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기재 누락 및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42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임파워먼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파워먼트 척도는 최민영 [18]의 임파워먼트 척도를 기초로 하여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임파워먼트 척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소로는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자기통제, 대인통제, 전공·진로통제, 전공에 대한 사기, 지식 및 기술적 성장으로 구성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과나 결과가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보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통제는 2문항으로 이루어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정도를 의미하는 대인통제는 3문항이다. 전공에 대한 사기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정도, 집착력, 소속감, 소속집단 목표에 대한 신뢰감, 자긍심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지식 및 기술적 성장부분을 측정하는 것 2문항이 포함하였다. 임파워먼트를 측정하는 문항의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4이었다. 총 19문항의 점수는 1점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5점 '정말그렇다'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임상기관의 실습 만족도

임상기관의 실습만족도는 김주리[19]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실습내용의 적절성과 실습 수행과정 및 실습기간동안의 과제, 실습일정 및 내용에 대한 평가이었으며, 5점 척도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김주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3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44 이었다.

3) 슈퍼비전 만족도

슈퍼비전 내용에서는 정수경[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실습지도자의 개인적인 문항을 제외하였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과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행정적 수

퍼비전을 제외한 지지적 공적관계, 지지적 사적관계, 학교 교육인지 등 총 17문항이었다. 척도는 5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슈퍼비전 정도가 많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964이었다.

4) 학교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문영순[2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보건계열실습에 맞게 구성하였다. 실습담당교수와 교수의 임상경력, 실습수업시기, 실습관련 과목 강의 수강 등의 실습수업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 7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수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실습수업 만족도의 Cronbach's α 는 .910이었다.

5)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관련 특성 변인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학과, 학과 지원동기, 군필 여부, 실습병원 유형, 학과만족여부, 실습병원 선정 시 의사 반영, 실습과제 수행 등 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보건계열에서 남학생의 숫자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이 대부분이어서 여학생과 나이가 차이가 나고, 향후 진로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실습효과가 높으며 실습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높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22]. 또한 전공만족도 변인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본인의 적성에 알맞은 역량수준을 새롭게 획득할 수 있고 학습 및 실습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습기관유형과 실습기관선택 여부는 본인의 지적인 발전을 고무시키는데 임상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23], 학과와 관련된 요인은 실습위주의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계열학과이지만 실습병원규모, 실습수업 시기, 실습관련 교육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6.0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척도로 구성된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실습 실패는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하였다. 주요 실습요인에 따른 변인의 차이는 t-검증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하였다. 임상실습병원의 실습내용 및 슈퍼비전 만족도, 학교실습수업 만족도와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독립변수와 실습학생들의 임파워먼트의 관련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모든 변인을 단계적(stepwise) 방식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1. 개인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임상 실습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 실습병원유형, 학과, 학과선택 만족여부, 군필여부, 실습병원 선정의사반영 여부 등이었다(p<0.05). 개인적 특성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병의원보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다. 또한 치위생과보다 방사선과에서, 학과선택을 만족하는 경우, 현역보다는 예비역에서, 실습병원선정 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에서 각각 임파워먼트 점수가 더 높았다[표 1].

2. 임상실습내용 및 슈퍼비전 만족도, 학교실습수업만족도와 임파워먼트 상관관계

임파워먼트와 임상실습병원의 실습내용만족도(r=.436,

p<.001), 슈퍼비전 만족도(r=.496,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교실습수업 만족도(r=.421, p<.001)와 임파워먼트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임상병원의 실습내용과 슈퍼비전에 만족할수록, 학교실습수업에 만족할수록 임파워먼트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변인	특성	빈도(%)	임파워먼트(Mean±SD)	p
성별	남자	74(30.6)	4.00±0.52	.000**
	여자	168(69.4)	3.54±0.56	
실습 시기	2학년 여름방학	35(14.5)	3.78±0.68	.576
	2학년 겨울방학	172(71.1)	3.66±0.58	
	3학년 여름방학	35(14.5)	3.69±0.59	
실습병원 유형 [†]	종합병원이상	131(67.5)	3.75±0.62	.033*
	병원, 의원	63(32.5)	3.55±0.58	
학과	방사선 ^a	48(19.8)	3.80±0.60	.013* (a,b)
	치위생과 ^b	49(20.2)	3.42±0.61	
	임상병리과	49(20.2)	3.75±0.61	
	간호학과	48(19.8)	3.69±0.53	
	물리치료과	48(19.8)	3.75±0.63	
	불만족 ^a	44(18.2)	3.23±0.55	
학과 선택 만족여부	그저그렇다 ^b	78(32.2)	3.52±0.52	.000** (a(b)(c))
	만족 ^c	120(49.6)	3.68±0.52	
군필	현역	176(72.7)	3.56±0.59	.000**
	예비역	66(27.3)	4.00±0.48	
	실습병원 선정의사	반영되지 않음 ^a	108(44.6)	
그저그렇다 ^b	21(8.7)	3.57±0.15		
반영됨 ^c	113(46.7)	3.79±0.06		
실습기관 과제 수행	성실히 수행함	211(87.2)	3.71±0.58	.084
	그렇지 않음	31(12.8)	3.51±0.67	

[†]실습병원 2군데 이상은 제외함.
a, b, c, d, e : Scheffe's test
* p<.05, ** p<.01

표 2. 실습내용 및 슈퍼비전 만족도, 학교실습수업만족도와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

	실습내용만족도	슈퍼비전만족도	학교실습수업만족도	임파워먼트
실습내용만족도	1			
슈퍼비전 만족도	.767**	1		
학교실습수업만족도	.347**	.279**	1	
임파워먼트	.436**	.496**	.421**	1

** p<.01

3. 학교 실습교육과 임파워먼트

학교에서 실습교육과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실습관련과목 강의수강여부 이었다 ($p<0.05$). 실습담당교수와 교수의 임상경력, 실습과목의 수업시기 등은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없었지만, 실습관련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이 일부 과목만 수강한 학생들보다 임파워먼트가 높았다[표 3].

표 3. 학교실습교육 요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변인	특성	빈도(%)	임파워먼트 (Mean±SD)	p
담당 교수	교수	194(80.2)	3.69±0.60	.573
	전임강사	9(3.7)	3.69±0.62	
	시간강사	0(0.0)	0	
교수 임상경력	일정하지 않음	28(11.6)	3.72±0.57	.587
	잘 모름	11(4.5)	3.44±0.39	
	2년미만	2(0.8)	3.98±0.03	
실습 과목 수업 시기	2년-5년	7(2.9)	3.59±0.74	.235
	5년-10년	36(14.9)	3.69±0.51	
	10년 이상	62(25.6)	3.77±0.64	
	잘 모름	135(55.8)	3.64±0.59	
실습 관련 과목 강의	실습 전	63(26.0)	3.79±0.61	.044*
	실습 후	28(11.6)	3.52±0.56	
	실습전과후 하지 않음	148(61.2)	3.67±0.58	
실습 관련 과목 강의	모두 받음	57(23.6)	3.82±0.60	.044*
	일부 받음	185(76.4)	3.64±0.58	
실습 관련 과목 강의	받지 않음	0(0.0)	0	

* $p<0.05$

4.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분석에서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인인 성별, 군필여부, 병원유형, 병원선정 시 의사반영, 학과만족, 실습과목 강의수강, 실습수업만족도 등을 단계적 입력(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성별($\beta=-.029$), 학과선택 만족여부($\beta=.194$), 슈퍼비전 만족도($\beta=.196$), 학교실습수업만족도($\beta=.204$) 이었다. 즉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만족을 하고, 실습기관의 슈퍼비전에 만족할수록, 학교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 개인의 특성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예측모형으로 유의하였으며($F=47.010, p<0.05$),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442로 44.2%의 설명력이 있다.

표 4. 보건계열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Std. Error	Beta	p	
성별	-.209	.068	-.163	.002	F=47.010, p<.05 Adjusted R ² =.442
학과선택 만족여부	.194	.034	.300	.000	
슈퍼비전 만족도	.196	.037	.288	.000	
학교실습수업 만족도	.204	.047	.227	.000	

IV. 고찰

보건계열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강의식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어서 임상의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부 과목에서는 교내 실습과 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적극적인 실무위주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보건계열의 학생들은 실제 임상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병원 업무와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전공 관련 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단순한 임상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및 치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뿐만 아니라 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역량 및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의미에서 실습교육은 학생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시키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임파워먼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실습병원유형, 학과, 학과선택 만족여부, 군필여부, 실습병원 선정의사 반영여부 등이었다. 이 중 성별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은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남학생들의 나이가 많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학교교육과 임상실습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기에 임파워먼트의 점수도 여학생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실습병원 유형은 병의원보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았다. 이는 유광열[11], 김영희[13] 등 기존의 연구에서 실습병원 규모가 큰 병원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는데 학생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 실습하기를 원하고, 병의원보다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실습교육이 체계가 잡혀있으며, 폭 넓고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과별로는 치위생과에서 임파워먼트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실습기관이 병의원이 많고, 학생들도 남학생이 없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스로 학과선택을 만족하는 경우와 실습병원선정 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에서 각각 임파워먼트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김학성[2], 유광열[11]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스스로 선택한 학과와 실습기관에서 실습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따라서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슈퍼비전 요인은 본 연구에서 실습기관의 환경이 좋고, 실습내용이 적절하고, 슈퍼바이저와 인간적 관계 좋게 형성됨으로써 임파워먼트도 높게 나타났다. 김학성[2], 한수정[3] 등은 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는 실습 학생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목표와 실습 수행 원칙을 수립하여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실습에 도움이 되며, 바람직한 슈퍼바이저는 학생의 현장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하고 규칙적인 피드백을 이해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전문가의 자격을 갖도록 교육할 능력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슈퍼비전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임상실습 슈퍼바이저는 실습생을 가르치는 교육이론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고충이 있고, 업무의 과다와 학생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임상실습환경도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습장소 제공이 되어야 하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고, 학생들의 실습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슈퍼

바이저의 지지가 요구된다[24]. 특히 슈퍼바이저와 개인적으로 멘토를 이룬 학생들의 실습만족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5]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와 관계가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대해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습기관에서의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실습교육에 대한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요구된다[26]. 또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전공이론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학생들과 실습과정을 함께 하기 위한 시간도 더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27]. 본 연구에서 슈퍼바이저가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도 높아진다는 결과로 볼 때 업무와 실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의 사전실습교육과 표준화된 실습교육 지침, 그리고 실습생을 우호적이고, 지지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효과적인 임상실습지도를 위해서 임상실습 지침서를 실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슈퍼바이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임상실습지침서는 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해서 교수와 슈퍼바이저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학교실습교육에서는 실습관련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것과 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습관련 과목은 특히 보건계열 일부학과 학생들은 교과과정 상 실습과목을 미리 배운 다음에 실습에 임해야 하지만 일부과목만 배운 채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수업을 하지 못한 과목에서는 실습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임상실습이 실습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일정을 정하다 보니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실습관련 과목을 다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11].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과 학생들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학교 실습수업의 현실이다. 하지만 학

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임상실습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과 실습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실습에 임해야 한다. 학교교수는 전공과목의 전문가로서 실습학생의 전문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멘토로서의 역할도 다하여야 한다[28]. 또한 실습지도교수는 슈퍼바이저 및 환자와 학생의 상호관계 속에서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임상교육의 숙련자, 능숙한 지도자, 통제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생의 학과선택동기, 가치관, 임상실습환경 등이 거론되는데[2][5][10],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전임교수와 슈퍼바이저, 학생이 실습기관에 상주하며 일정기간 실습지도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비디오, 오디오, on-line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도 임상실습 수행에 필요로 한다[29].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고, 실습수업에 만족할수록 실습에 의한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습병원 및 슈퍼바이저 요인 중에서는 실습내용이 학생들에게 적절한가, 슈퍼바이저와 학생 관계에서 지지적 공적관계가 형성되는가 등이었다. 이는 학생들의 임파워먼트가 높은 자기효능감,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실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더 높고, 학생에게 지지적인 슈퍼바이저는 실습학생의 임파워먼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래에 전공의 전문가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이미 실습을 마친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상연구이기 때문에 실습이 종결된 이후 실습과 관련된 경험을 질문을 했을 때, 실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구지역 한 대학교 학생들 중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였고, 실습기관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이 연구 결과를 전체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V. 결론

임상실습 및 실습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는 자세와 주관적인 의지에 관련이 있고, 실습기관의 규모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실습수업에 만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결국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은 본인의 학과에 만족하며 실습수업에 충실히 임하여야 하고, 슈퍼바이저는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지침서를 충분히 활용하며, 학생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전에 실습과목이 수강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실습 전에 충분한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 고 문 헌

- [1] 조미영,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39-248, 2010.
- [2] 김학성, “방사선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방사선과학회지, 제27권, 제4호, pp.75-83, 2004.
- [3] 한수정,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pp.132-146, 2000.
- [4] 손수경, 정복례, 정승은, 박진미, 이수연,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3권, pp.59-77, 1997.
- [5] 양진주,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가치관과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2호, pp.276-286, 2000.
- [6] 신성규, 임인철, “방사선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 도와 관련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9호, pp.276-284, 2010.
- [7] J. A. Conger and R. N. Kanungo,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pp.471-482, 1988.
- [8] D. R. Leslie, C. M. Holzhalb, and T. P. Holland, “Measuring staff empowerment development of a worker empowerment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8, No.2, pp.212-222, 1998.
- [9] L. H. Staples, “Powerful ideas and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14, No.2, 1990.
- [10] 조결자, 강현숙,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63-74, 1984.
- [11] 유광열, 김현수, “대학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현황과 발전방향”, *방사선 기술과학*, 제29권, 제4호, pp.303-310, 2006.
- [12] 김영숙, 김명순, 조원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결정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8권, 제1호, pp.51-61, 2002.
- [13] 김영희,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07-315, 2009.
- [14] 박예린, 양 수, “간호관리자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간호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임파워먼트”,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42-352, 2008.
- [15] 박종선, 박복남,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업무생산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0-158, 2008.
- [16] 신선정, 정원균, 김기영, “치과위생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들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4권, 제4호, pp.525-533, 2010.
- [17] 이해경, “임파워먼트가 치과 의료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97-309, 2010.
- [18] 최민영, *현장실습경험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김주리, “*사회사업 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20] 정수경,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실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지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pp.327-355, 2004.
- [21] 문영순, *간호학생이 평가한 수술실 실습 교육의 교수효율성과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22] A. Valle, R. G. Cabanach, J. C. Nunez, J. Gonzalez-Pienda, S. Rodriguez, and I. Pineiro, “Multiple goals, motivation and academic learning,” *British J. Educational Psychology*, Vol.73, No.1, pp.71-87, 2003.
- [23] L. Chenoweth, “Facilit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thinking for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Vol.18, No.4, pp.281-292, 1998.
- [24] S. V. Dunn and B. Hansford,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 Adv Nursing*, Vol.25, pp.1299-1306, 1996.
- [25] P. Evridiki, L. Ekaterini, T. Haritini, S. Mikko, and L. K. Helena,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learning in the clinical environment,”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0, No.3, pp.176-182, 2010.
- [26] D. S. Chan and Y. I. Wan, “Perception of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 A survey of Hong k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27, No.7, pp.677-684, 2007.
- [27] D. Lewi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for student nurses: Key indices from two studies compared over a 25 year period,”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7, No.4, pp.238-246, 2007.

[28] I. Papp, M. Marjatta, and B. Mikaela, "Clinical environment as a learning environment: student nurses' perceptions concerning clinical learning experiences," Nurse Educ Today, Vol.23, No.4, pp.262-268, 2003.

[29] 이여진, "Blended learning을 이용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2008.

[30] C. Bradbury-Jones, S. Sambrook, and F. Irvine, "The meaning of empowerment for nursing students: a clinical incident study," J Adv Nurs, Vol.59, No.4, pp.342-351, 2007.

저 자 소 개

강 영 한(Yeong-Han Kang)

정회원



- 2005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과(보건학석사)
-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재직

<관심분야> : 보건응용, 의료영상컨텐츠, 보건교육

박 중 삼(Jong-Sam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1993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재직

<관심분야> : 보건응용, 의료영상컨텐츠, 보건교육